

보도시점 : 2026. 6. 23.(화) 11:00 이후(6. 24.(수) 조간) / 배포 : 2026. 6. 23.(화)

24일 「2026년 철도의 날」 기념행사 개최 “세계를 여는 K-철도,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”

- 우즈베키스탄·베트남 등 해외진출 성과 공유, 철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
- 철도산업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 협력 세미나, 문학상 등 수상작 전시도 함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6월 24일 오후 서울(중구)에서 「2026 철도의 날」 기념식을 개최한다.

- 이번 기념식*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-철도에 대한 자부심과 철도 산업의 발전이 국가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의미를 담아 “세계를 여는 K-철도,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”을 주제로 열린다.

* (주최) 국토교통부 / (주관) 한국철도산업협회,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, 에스알

-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철도업계 및 유관기관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기념식에서는 철도산업 발전과 해외시장 개척, 철도안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훈·포장 및 대통령 표창, 98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표창, 2명에게 장관상을 수여한다.

□ 부대행사로 “철도산업발전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”을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, 『제12회 철도문학상 공모전』 및 『제2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』의 수상작품도 전시된다.

- 기념세미나에는 체코, 모로코, 탄자니아, 이집트, 필리핀, 독일 대사관에서 참석하여 해당국의 철도산업인프라 현황 및 철도산업을 소개하고,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,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, 한국교통대학교에서 해외진출 전략 등을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.

- 문학상 공모전과 영상 공모전에는 각각 1,238점과 52점이 출품되었다. 문학 부문은 「궤도의 눈빛」이, 영상 부문은 「철도 위의 도슨트」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 수상작품들은 한국철도산업협회 누리집 (www.korass.or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 - 아울러, 철도차량, 신호장치 등 최첨단 철도산업 기술과 안전 장비를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공공과 민간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이 수출되어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, 베트남과도 4,900억 원 규모의 메트로차량 수출계약을 맺는 등 그간 성과를 두고,
- “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는 대한민국 철도인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다”고 치하하며, “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, 차세대 고속철도의 기술개발과 K-철도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 - 특별히, “아무리 빠른 철도도,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안전을 앞설 수는 없다면서,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 주실 것”을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우정훈	(044-201-3938)
		담당자	서기관	김재돈	(044-201-3939)
			주무관	박동준	(044-201-3943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| TOMORROW